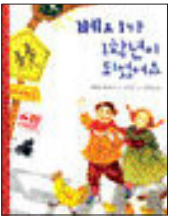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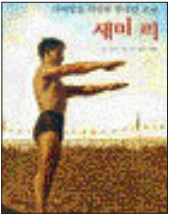
▲귀를 기울이면=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빠를 그리워 하는 딸 아이에게 마음대로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엄마의 메시지가 몽글몽글 감동을 준다. 엄마는 딸 아이에게 마음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비록 볼 수도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안아주는 것도 느낄 수 없지만 아빠가 보내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꽃빛·9천원)



▲베시가 1학년이 되었어요=초등학교에 입학한 베시의 기가막힌 학교생활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려내고 있다. 학교 생활에 두려움을 느낀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한 이 작품은 학교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즐거운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주니어 김영사·8천원)



▲다이빙을 사랑한 한국인 소년, 새미리=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새미리의 이야기. 인종차별과 편견을 딛고 금메달을 딴 그의 감동 스토리는 인종과 민족,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위해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갈매기 어린이·8천500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유충렬전=조선 후기 민간에 널리 읽혀진 군담소설로 병자호란에서의 영웅 유충렬의 활약상을 통쾌하고 흥미진진하게 다뤘다. 주인공의 비정 상적인 출생, 성장과정에서의 시련과 극복, 영웅적 투쟁과 화려한 승리 등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그려져 있다. (현암사·8천500원)



▲가자, 가자, 멕시코로=어린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주기위해 기획된 그림책. 멕시코의 역사와 축제, 이국적인 풍광이 마치 멕시코 여행을 떠난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해와 나무·7천800원)



축구와 야구 문화적 차원 분석

왜 세계는 축구에 열광하고...

지만스키·짐벌리스트 지음



알렉스 로드리게스

저자는 먼저 탄생 과정에 주목한다. 야구는 이윤에 많은 관심을 가진 '독점'이었던 데 반해 축구는 서로 '경쟁'하는 클럽 연맹이 그 뿌리다. 이 책은 초창기 축구가 빅토리아 시대 신사 계층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면, 야구는 더 상업적 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의 이념과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스포츠는 문화를 반영한다. 유럽인과 미국인의 가치관 중 축구와 야구 문화의 차이만큼 명



데이비드 베컴

기원·발전과정 통해 '상생' 모색

거대산업으로 성장 배경 설명도

백한 것은 없다. 야구와 축구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축구가 약한 팀이라도 수비에만 전념하면 종종 이기는 것을 경멸(불공정이라고 본다) 하고, 경기의 3분의 1이 무승부로 끝난다는 점을 비웃는다. 반면 유럽인들은 TV 방송에 적합하도록 경기 규칙을 수정하거나 실력이 엉망인 팀이 하위 리그로 강등되지 않고 리그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축구는 어떻게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었을까. 축구가 확산된 시기가 대영제국이 상업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했던 게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스포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선수'다. 저자는 꽃미남 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데이비드 베컴을 통해 선수시장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 그밖에 방송매체의 중계방송이 갖는 의미, 왜 축구는 야구 클럽에 비해 돈을 벌지 못하는 지 등을 역사적 사실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야구와 축구가 서로를 바라볼 것을 권한다. 양키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업적 제휴를 맺고, 유럽축구와 미국야구에 동시에 투자하는 머독의 사례에서 보듯 야구와 축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에디터·1만3천원)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 형성과정 알려면 고대 문화 이해하라

옛날 사람들은... 이바르 리스너 지음

경주 토함산 석굴암의 불상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불교의 발생지 인도에서는 원래 인물을 조각하는 미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물 조각상은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군과 동행했던 그리스 조각가들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미술 형태는 중국을 거쳐 신라에까지 도착하게 된다. 그리스 문명은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와 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의 불길 아래 덮여졌던 적이 있다. 서양 문명과 서양인들이 이들 문명의 영향을 받았



다는 얘기다. 이처럼 고대 문화는 현대의 깊은 곳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고대 문화로 치부해왔던 '옛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듯 써놓은 책이 발간됐다. 리트비아 공화국 출신 지식인 이바르 리스너(Ivar Lissner·1919~1967)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로의 기행 차원이 아니라 현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고대 문화의 형성과정을 마치 현재의 역사처럼 생생하고 엮어내고 있다. 20년 가까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옛 도시나 신전의 유적 등을 직접 찾아다니던 저자는 현대인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고대를 전문가의 안목으로 풀어냈다.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등 전설과 불가사의로 덮힌 아시아, 폴리네시아 등 살아있는 박물관 오세아니아, 침략과 수탈의 역사인 아메리카, 신화의 세계 유럽, 검은 대륙의 문명 아프리카 등. 저자가 들려주는 문명과 국가의 탄생, 수많은 영웅의 출현과 전설·신화는 차라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다가온다. (솔·1만9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이정록의 '의자'

봄이다. 또 한 주일이 지나고 있다. 내일, 그리고 모레면 오월이다. 오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다. 모두를 섬기는 날. 어린이를 섬기고, 아버비를 섬기고, 스승을 섬기는 날이다. 오월에 섬겨야 할 것 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오월에는 '나' 자신의 영혼도 좀 섬겨 보자. 영혼을 섬기는 일 중에 시를 읽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언제나 영혼을 기를지려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시 아닌가. 오월의 봄밤에는 시도 좀 읽어 보자. 나뭇잎과 참문을 파고들던 훈풍이 우리의 가슴까지 파고드는 오월의 봄밤, 이팝꽃과 조팝꽃 향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시집이 있다. 3월에 간행된 이정록의 새 시집 '의자'(문학과 지성사 펴냄)가 그것이다. 이정록의 새 시집 '의자'에 수록된 시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생생한 화풍을 지니고 있다. 거개의 시들이 독자의 가슴에 깨어 있는 삶의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그의 이번 시집이다. 그간의 그의 시집처럼 이번

하찮고 사소한 것에 대한 애정



의 그의 시집도 자연과 함께 하는 일상의 구체적인 체험 및 관찰로부터 발생된다. 물론 이때의 체험 및 관찰로부터 발생하는 시적 화폭에는 시인 자신이 깨닫는 진실과 지혜가 변덕이는 모습으로 담겨 있다. 아무리 보잘 것없고 사소한 자연의 사물이거나 인생의 사건이라도 시인 이정록의 집요한 눈길에 포착되면 의미심장한 삶의 진리와 지혜를 거느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정록의 시는 형식과 내용이 아주 행복하게 결합되어 있는 실례(實例)로 논의 되어도 좋다. 서정시의 고전적 형식과 방법을 심본 간직하면서도 일상의 진실과 지혜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그의 솜씨가 자못 놀랍다. 시인 이정록은 아직도 시를 독자들과의 함께 하는 서정적 공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집의 시들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지어져 매 편의 시가 독자의 과정에 심미적인 감흥을 함께 나누도록 독자들을 촉구한다. 소통이 불가능한 추상적 관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최근의 시들이고 보면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이런 면들은 매우 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시들을 담백 함유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번 시집 '의자'이다.

이번 시집 '의자'에 수록되어 있는 이정록의 시들은 지난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이른바 '삶의 문화'와 맥을 함께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문화'는 리얼리즘의 전통에서 비롯되면서도 문학 고유의 서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일련의 경향성을 가리킨다. 그의 시 속에 수렴되는 사물들, 시를 통해 그가 수용하는 존재들이 언제나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며 저 자신과 동등하게 시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의 이런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면 그는 저 자신의 시를 통해 만상의 존재들과 똑같이, 고르고 익어가는 세상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구현하는 가치와 세계는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이은봉 <광주대 교수·시인>



광주일보 창사 54주년을 축하합니다

<p>광양·구례국회의원 의원 우윤근 광양시 광양시의회 광양경찰서 서장 오진선 광양교육청 교육장 김계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 광양소방서 서장 김확표 광양우체국 국장 김영수 광양새마을 관장 김기순 한국전력공사광양지점 지점장 이인선 KT 광양지점 지점장 김범수 전남드래곤즈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공윤찬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김영</p>	<p>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지부장 김정두 동광양농협조합 조합장 정윤선 진월농협조합 조합장 박상익 다압농협조합 조합장 손홍용 주식회사원창 대표이사 문승표 대한시멘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철행 승리산업 대표이사 정경기 HOTEL PHILEMO 대표이사 박영선 스포텍스 대표이사 문재웅 문배철강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주식회사서회건설 임직원 일동 남경건설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구양실업주식회사 임직원 일동</p>	<p>등아스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준 대한지적공사광양지사 지사장 한운석 LG이전자마트 대표이사 김태균 주식회사승일개발 대표이사 강윤태 시장약국 대표이사 김재필 웰빙부동산 대표이사 이문균 대호공인중개사 대표이사 신진호 원진공인중개사 대표이사 이복기 주식회사광일개발 대표이사 안호일 태영부동산건설 대표이사 안호일 금강공인중개사 대표이사 허정철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박부흥 대원부동산건설 대표이사 진경수</p>
--	--	--